

李灌鎔氏의 (唯物批評 根據)의 (前言) 撤回를 要求하는 公開狀(一)

裴相河

이러한 書文의 公開는 될 수 있는대로 서로 避하는 것이 조할 것 같다. 『學的 態度云云』이라는 個人에 對한 人身的 批評에 잇서서는 더구나 朝鮮 사람일사록 批評의 對象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 對한 批評을 公開하는 것보담 直接 批評의 對象인 그 『한 사람』에게 忠告도 하고 說論도 함이 도리어 더 큰 效果를 나치 안홀가 한다.

그럼으로 筆者도 이 公開狀을 公開狀으로써 公開하기를 躊躇했었다. 그러나 이 公開狀을 公開狀으로써 公開치 안흐면 아니 되게 한 根本 動機가 李先生의 『唯物論 批評의 根據』의 前言이 한 개인의 公開狀인 까닭에서 있다. 李先生의 『前言』은 朝鮮日報 第三千百五十八號 『研究와 批評』欄에 실린 것이니 읽으신 讀者에게는 아직 記憶에 새로울 것이다. 그리고 萬若 (萬若이란 말에 特別히 注意치 안흐면 아니 되겠다.) 該前言을 미드심으로써 筆者를 誤解하신 讀者가 계시다면 그 이의 誤解도 또한 다시금 回想될 줄 맞는다. 該前言은 徹頭徹尾 筆者의 『非唯物的 哲學觀』의 誤解라 하지 안홀 수 없다. 그럼으로 誤解인 前言을 미드신다면 讀者도 또한 筆者를 誤解치 안홀 수 없섯을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學的 態度에 對한 誤解이며 따라서 人格的 行動에 對한 誤解인 以上, 아모리 참을性 만흔 사람이라도 誤解를 理解에까지 訂正키 爲하여 힘쓸 것이어늘 하물며 李先生의 말을 빌면 『조치 못한 學者의 態度』를 가진 筆者이니, 小心翼翼으로써 물이야 불이야 서들으지 안을 수 업는 形便이다. 다시 박구어 생각하면 그만큼 李先生의 誤解는 徹底하였다고도 할 수 잇을 것이다.

前言은 몇 行 되지도 안는 自制 『反駁文 아닌』 反駁文이다. 그것이 몇 行 되지 안흐면 안홀사록 筆者에 對한 表面的으로써의 致命的 反駁, 其實 內容에 잇서서는 前後를 살피지 못한 盲目的 獨斷이라 하지 안홀 수 없다. 그것이 엇서케 하여 『反駁文 아닌』 反駁文이며, 엇서케 하여 表面的으로써의 致命的 反駁, 內容으로써의 盲目的 獨斷 다시 말하면 完全無缺한 誤解인가는 徐

徐히 論理的으로 證明하려니와 그 먼침 筆者의 學的 態度를 尊重하시든 李先生으로써 엇더한 一時的 錯亂으로 말미암아 이와 가튼 誤解에 빠져지 안흐면 안니 되었슬 그 씨의 先生의 學的 態度에 對한 疑訝症을 禁할 수 업는 바이다.

日前에 어느 研究會 會員의 한 분이 筆者의 『非唯物的 哲學觀』을 批評하야 曰 『고약하다』고 하얏다. 그리하야 筆者는 그가 果然 筆者의 該論을 쓰까지 읽었나 안 읽었나를 反問하야 보얏다. 그는 그의 勝利를 스스로히 肯定하 다 싶은 明朗한 語調로 읽지 안헛다고 하얏다. 『그러면 조타.』 筆者는 이러케 對答하고 뒤도라서고 마렸섯다. 그러면 조흔 것이다. 그가 筆者의 論文을 『고약하다』한들 쏘는 더 甚히 그 論文으로 말미암아 筆者를 죽이기까지 미워한들 쏘는 反對로 肯定하고 稱揚하얏든들 그것은 筆者에게 잇서서 한 棼 어치 價値 업는 批評에 지나지 못한다. 웨 그러나 하면 그가 該論을 쏘까지 읽지 안흔 以上(더구나 該論의 中心은 마지막 結論에 잇섯스니깐) 그는 何等의 批評 權限을 갖지 못한 까답이다. 이와 가티 李先生의 『前言』도 쏘한 筆者에 잇서서는 한 棼어치 價値 업는 批評이엇기 새문이다. 웨? 李先生도 그 經濟研究會員 한 분과 가티 나의 論文을 마음 먹고 쏘까지 읽지 안치나 안 치나[안앗나] 하는 疑心도 생기는 것이다. 批評의 結果로 볼 것 가트면 經濟 研究會員의 『고약하다』라는 批評과 李先生의 批評인 『前言』과는 『한 棼어치 價値업다』는 꼭 가튼 結論에도 여러 가지의 前提는 잇슬 수 잇는 것이며, 쏘한 李先生의 學的 態度를 그만큼 至毒하게 侮辱함도 唐突할 것 가태서 이 야말로 억찌로 李先生은 必然코 나의 論文을 쏘까지 읽엇스리라고 미더둔다. 쏘 그러나 設令 李先生을 尊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미더둔다 한들 萬若에 李先生이 眞實히 學究的 精神으로 나의 論文을 읽엇다고 할 것 가트면 어찌 한理由로 該論의 中心을 잡지 못하엿슬까 하는 疑心은 아직 푸러지지 안코 그양 남아잇다.